

여수·순천·광양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오현섭 여수시장

‘청정 순천만’ 이미지 실추 어떡하나

체협선·낙시어선 등 불법 운항·관광객에 호객행위도

“엑스포 SOC 차질없이 확충”

“4년 4개월 남은 ‘2012 여수 세계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SOC(사회간접자본)확충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비해 여수 국가산단 연관 단지를 확대 조성하는 한편 오전산 단 노후 시설을 정비해 지방산단을 육성하고, 중대형 조선포를 비롯한 기업 유치에 본격화할 방침이다.



조성 ▲산간기반시설 확충 ▲성공적인 제 89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등도 올해 여수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사책들이다.

조선소 등 기업 유치 박차

‘여수 엑스포 성공개최 5개년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광양만권을 비롯한 남해안권 시·군과의 원활한 협력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자를 환영하는 친기업 분위기를 조성하며, 세계박람회 유치과정에서 얻어진 여수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국내외 홍보 강화로 국제적 인지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사업의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현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순신광장 조성을 비롯해 ▲아름다운 야간경관 조성 ▲사도·남도지구 관광지 조성 ▲WTC 복합컨벤션센터 ▲구겐하임 미술관 유치 추진 ▲친환경 녹색도시 ▲여수국가산단 연관단지 확대

목표~거제 일주도로 구축 오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은 공무원 개인의 능력향상과 시민들의 시정참여에 달려있다”면서 “각종 지역현안과 주요 시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행정절차를 꼭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부강 여수건설’을 위한 큰 목표로 이뤄가는데 한 발짝 다가섰다”며 “여수 경제는 향후 급속한 성장이

오 시장은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부강 여수건설’을 위한 큰 목표로 이뤄가는데 한 발짝 다가섰다”며 “여수 경제는 향후 급속한 성장이

세계 5대 연안습지인 순천만에서 선박의 불법 운항과 호객 행위가 성행해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순천만에는 체협선 4대, 낙시어선 1대 등 5척의 배가 허가를 받아 운항하고 있다. 그러나 낙시어선으로 운항허가를 받은 뒤 체협선으로 둔갑해 일반 관광객들을 상대로 호객행위까지 일삼고 있으며 선주들 간에 수익금을 놓고 다툰다는 지적이 있다.

로 관광분위기를 망쳤다”며 “이같은 일이 되풀이되면 순천의 이미지마저 실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순천 신도심에 살고 있는 정모(여·주부)씨도 “다시 찾고 싶은 순천만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지도 단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GS칼텍스 ‘사회공헌사업’ 본격화

여수시, 태스크포스팀 발족...내년 초 사업 착공

GS 칼텍스가 지난해 10월 여수시와 체결한 협약서(MOA)에 따라 올해부터 사회공헌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따라 여수시는 이달 내로 공무원 3~4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발족하고, 사업 대상 선정에 대한 의견을 의국에 제출할 계획이다.

협약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SK 에너지가 울산에 조성한 시민공원에 1천 600여 원을 지원한 것으로 안다”며 “SK 에너지보다 더 많은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나해 GS 칼텍스 관계자들과 울산 SK 시민공원, 경주 엑스포공원을 둘러봤다”며 “시민들에게 기념비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현섭 여수시장과 허동수 GS 칼텍스 회장은 지난해 10월 10일 ‘여수시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GS 칼텍스재단을 통해 추진하고, 여수시는 GS 칼텍스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했다.

특히 여수시는 2천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기대하고 있어 GS 칼텍스와의

여수시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로 구체적인 사업 대상을 선정해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여수 침몰선박 실종자 수색 재개

해경·여수시, 선사에 선체 인양 촉구 명령서 보내

여수 해상에서 침몰한 화학약품 운반선 이스턴 브라이트(EASTERN BRIGHT)호에서 실종된 선원 14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2일 재개됐다. 해양경찰청은 풍랑경보가 풍랑주의보로 바뀌면서 높은 파도와 거센 풍랑때문에 중단했던 수색작업을 재개했다.

또 선사인 ㉸NHL개발 측이 심해 잠수업체와 계약을 맺고 착수할 예정이었던 수색 작업도 기상 악화로 지연되고 있다. 한편 구급 28·29일 해경 방제팀이 실시한 사고 해역 인근 바닷물의 심층 조사 결과 산성도(pH)가 정상 수준인 7.9~8.1로 나타나 질산 유출로 인한 오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with 3 columns: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Lists various locations and their corresponding phone numbers.

호남 폭설에도 여수 적설량 고작 0.7mm 왜?

평균기온 광주보다 4~5도 높고 눈구름, 조계산 넘어서면 약해져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폭설이 내린 가운데 여수에서는 눈이 거의 구경할 수 없었다. 이유는 무엇일까. 광주·전남 지역의 겨울철 눈은 시베리아에서 부는 차가운 공기가 10도 안팎의 ‘따뜻한’ 서해 바다와 만나 수증기를 발생, 강력한 눈구름이 형성되면서 내리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 서해안 일대에는 많은 눈이 내리지만 눈구름대가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세력이 현저하게 약해져 눈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

따라서 구급 30일째 지난 1일까지 여수와 같은 위도에 위치한 서해안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렸지만, 여수지역 적설량은 0.7cm에 그쳤다. 부산 등 경남 남해안지역에서

‘광양 마로산성’ 국가지정문화재 됐다

6세기 초 백제 산성...보존 잘 돼

광양 마로산성이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지난 1일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해발 200m의 산 위에 자리한 마로산성(전남기념물 제173호·1만9천945㎡)을 국가지정문화재 제 492호로 지정했다. 마로산성은 6세기 초, 산을 빙 둘러 돌을 쌓아 만든 백제 산성이다. 9세기까지 사용된 성곽이 잘 보존돼 있고, 5차례 발굴조사에서 명문기와편 등이 출토됐다. 백제~통일신라시대의 건물지 17동 등 200여점의 다양한 유물이 나왔다. 웅진 백제시기의 전남 동부지역의 산성 특징을 잘 보여주고



지난 1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광양 마로산성. 6세기 초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성곽 등이 잘 보존돼 있어 고대 산성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있으며, 보존상태가 좋아 국내 고대 산성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 당시 생활상을 연구하는 단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일가공인중개사' (Family Real Estate Broker) with contact info and property listing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현대공인중개사' (Hyundai Real Estate Broker) with contact info and property listing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국민공인중개사' (National Real Estate Broker) with contact info and property listing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Real Estate Auction Specialist) with contact info and property listings.